

▶ '무주 산골영화제' 내일 개막

바쁜 일상 뒤로 넘기고
밤하늘을 스크린 삼아

“우리 영화보러 산으로 간다”

제5회 무주산골영화제가 오는 2일~6일 무주둔나무운동장과 덕유산국립공원 대집회장, 안성면 두문마을 일원에서 열린다.

상영작에 대한 별도의 예매 없이 당일 현장 선착순 무료로 진행되는 영화제는 그간 좌석부족으로 인하여 보고 싶은 영화를 볼 수 없었던 관람 환경을 개선하고자 산골영화관 2개관에서 한 작품을 동시 상영한다. 이에 따라 올해 영화제에서는 작년보다 다소 줄어든 총 30개국 72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무주산골영화제의 프로그램 콘셉트인 '시네마 리플레이, 좋은 영화 다시 보기'를 통해 선보이는 작품들은 수많은 개봉작 중에서 미처 관람하지 못했던 영화를 재발견 하는 묘미를 선사한다.

개막작은 김태웅 감독이 총연출을 맡은 레게 음악극 '레게 이나 필름, 흥부'. 작품은 1967년 김태웅 감독이 연출한 한국 최초의 스톱모션 인형 애니메이션

'흥부와 놀부' 이야기에 자메이카의 민중음악인 레게 그리고 한국 전통의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해학과 유쾌함을 담아낸다. 상영은 2일 오후 8시 무주둔나무운동장.

강 감독의 영화를 이번 영화제의 개막작으로 선정한 것은 그때 당시 기발한 상상력과 뛰어난 기술적 완성도에도 불구하고 일반 관객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데 따른 것. 제5회 청룡영화상 비극영화 부문 작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폐막작은 한국장편영화경쟁부문인 '장' 섹션의 뉴비전상(대상) 수상작 중 한 편을 선정하여 상영한다. 경쟁작은 김일란·이희상 감독의 '공동정범', 정운석 감독의 '밤섬해적단 서울불바다', 남연우 감독의 '분장', 이수정 감독의

산골영화관 2곳서 한 작품 동시에
작년보다 줄어든 72편 영화 상영

'시네마 리플레이' 등 통해

미처 관람 못했던 작품

'재발견' 하는 묘미 선사

개막작은 '레게 이나 필름, 흥부'

'시 읽는 시간', 손태겸 감독의 '아기와 나', 박석영 감독의 '재꽃', 김대환 감독의 '초행', 장우진 감독의 '춘천, 춘

천', 임태규 감독의 '폭력의 씨앗' 등 총 9편.

또한 덕유산국립공원 내 해발 700m에 위치한 대집회장에서는 숲 속 영화관이 운영된다. '미술관 옆 동물원' 등 아날로그 감성을 자극하는 영화상영과 더불어 다양한 음악공연들이 펼쳐진다.

이외에도 안성면 두문마을에서는 지난해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56호로 지정된 무주 대표 전통 불꽃놀이인 낙화놀이와 함께 야외상영이 진행되며, 무주읍 서면마을에서는 반딧불 신비탐사와 영화가 상영된다. /정해은 기자



싱그러운 6월 첫날 선사하는 아름다운 선율

정읍시립합창단, 오늘 정기연주회

정읍시립합창단(이하 시립합창단)이 1일 제61회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시립합창단은 "싱그러운 6월 첫날 정읍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를 마련,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저녁 7시 30분 정읍시예술회관에서 펼쳐진다. 지난해 공개 모집을 거쳐 엄정한 심사를 통해 새롭게 위촉된 지휘자 이일규 씨의 첫 공연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전체를 합창곡으로 구성했다는 점에서도 흥미롭다. 전체 12곡을 선보이는데, 우리 가곡인 '강 건너 봄이 오듯'과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등의 우리 가곡과 가요를 비롯 하이든 작곡의 서가인 '영광' 등을 들려 줄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1986년 영화 '비선'의 테마곡인 '가브리엘의 오보에'에 이탈리아어 가사를 붙인 '넬라판타지아'와 불멸의 상송가수로 추앙받고 있는 '상송의 여왕' 에디트 피아프의 '사랑의 찬가'도 만날 수 있다.

특별초청된 '포 힘 앙상블(FOE HIM EMSEMBLE)'과 '칼로 스키즈 어린이합창단'의 공연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네 명의 남성들로 구성된 '포 힘 앙상블'은 바이올린과 첼로의 현악 구성에 목관악기인 플루트를 다한 편성으로 구성돼 있다. 공연에서는 모차르트의 '플루트 4중주 1악장'과 영화 '여인의 향기' 중 탱고 'Por Una Cabeza' 등을 선사한다.

또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어린이'라는 뜻의 '칼로 스키즈 합창단'이 '아름다운 말' 등 다수의 곡과 동요 메들리를 선보인다. /정읍=김대환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다도 클래스' 마련

국립전주박물관(관장 김승희)은 문화가 있는 날의 외연확대를 위해 토요일 야간개장과 연계한 '다도 클래스'를 마련한다.

'문화가 있는 날 플러스' 행사로 기획된 이번 다도 클래스는 10일, 17일, 24일 오후 3시 박물관 내 휴게실 마루에서 진행된다.

이립 다례학당 설예원 원장(한국차문화협회 부회장 겸 전북차부부)이 강사로 참여하여 선조들의 차 문화인 전통 다도의 체험과 함께 생활예절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총 3회차로 구성된 이번 클래스는 1회차인 10일에는 생활다례를 통해 차의 정의와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

2회차인 17일에는 차의 6대 분류와 시대별 차종에 대하여 학습한 후 '행다실습-점다법'을 통해서 밀차(가루녹차) 체험을, 3회차인 24일에는 세계의 다양한 차 종류와 빛깔을 살펴보고 차 발효차 행다법에 대하여 배우면서 청차·홍차·보이차 등의 시음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참가 인원은 회차별로 각 24명(3회 총 72명 모집)을 모집하며, 3명씩 조를 이루어 총 여덟 테이블로 운영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전주박물관 누리집(jonju.museum.go.kr)에서 오는 2일 오전 10시부터 6월 23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선착순으로 일괄 예약 받는다. /정해은 기자



김소라 '레디메이드 인생', 우진문화재단 소리극 공모 선정

김소라 작 '레디메이드 인생'(가제)이 우진문화재단의 2017창작소리극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창작소리극은 전북문화관광재단 '2017소극장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김소라(극단 두루 대표) 씨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제작지원금 천만 원과 작품제작에 필요한 공연장·조명과 음향 등 기술지원·공연홍보물 제작·공연연습을 위한 연습실 등을 지원 받게 된다.

채만식의 소설과 판소리 흥부가를 콜라보레이션한 작품은 학력과 스펙은 높아만 가는데 여전히 취업은 하늘의 별따기인 요즘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왕기석(판소리명창·정읍사국악단 예술감독), 류경호(연극연출가·전주대 공연엔터테인먼트학과 교수), 김선희(우진문화재단 이사장)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심사평에서 "작품은 탄탄한 서사구조가 돋보였으며, 근대 소설과의 접목으로 더욱 혁신적인 구조를 가능하게 했다"고 평했다. 이어 "주제는 무겁게 설정하되 극적요소의 활용으로 보는 재미를 놓치지 않겠다는 것과 치열한 작가정신을 예고하는 작품으로 준비기간을 거쳐 향후 무대화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고 덧붙였다. /정해은 기자



무형문화재 대중화·보존 활성화

무형유산원, 공개행사 개최

전주소리문화관, 오늘부터 5일간 운도장·선자장 7일부터 11일까지 화해장 등

남원서 3일부터 4일간 백동연죽장

국립무형유산원(원장 강경환)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대중화와 보존 전승 활성화를 위해 '2017년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를 갖는다.

전주소리문화관에서는 제110호 운도장(보유자 김종대), 제128호 선자장(보유자 김동식) 공개행사가 1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다.

'운도장'은 24방위를 원으로 그려 넣은 풍수 지남침, 자석 바늘을 이용하여 풍수를 알아볼 때나 천문과 여행에서 사용되

는 것으로 나침반, 지남반, 패철이라고도 한다.

'선자장'은 전통부채로, 형태상으로 크게 둥근 모양의 부채와 접고 펼 수 있는 접부채로 나뉜다.

이어 7일부터 11일까지는 제4호 갖일(보유자 박정영), 전통 신발을 만드는 제116호 화해장(보유자 황해봉) 공개행사가 열린다.

또한 전북 남원에서는 백동연죽전수회에서 제65호 백동연죽장(보유자 황영보)의 공개행사를 3부터 6일까지 진행한다.

'백동연죽장'은 백동으로 만든 담뱃대를 말하는 것으로, 이날 행사에서는 섬세하고 정교한 손기술을 필요로 하는 금속 세공 기능 제작 과정을 직접 선보일 예정이다.

공개행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 새 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해은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ECO융합섬유연구원

2017년 4~6월 복합섬유소재관련 기업 재직자 교육

"에코융합섬유연구원(Korea Institute of Convergence Textile)은 섬유패션산업의 기술혁신과 소재개발을 선도하여 미래를 준비해가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문 생산기술연구소입니다."

- 기술개발 및 사업분석
- 시제품 생산
- 기술, 정보제공
- 디자인

연구원
주요
사업

- 전문인력 양성
- 창업기업지원
- 지식재산권
- 연구용역 수행

[54888] 전라북도 익산시 석왕동 639번지 (서동로 594)
Tel. 063) 830 - 3576 Fax. 063) 830-3540 www.kictex.re.kr

CEO 및 재직자 교육 안내

일시	기술역량강화세미나 : 재직자 대상
4월 18일	하이브리드 복합 섬유소재 첨가공 기술동향
5월 2일	3D프린팅기술을 활용한 제품개발 방안
일시	생산/연구장비 활용 실습교육 : 재직자 대상
4월 19일 ~ 21일	화학적 분석장비(SEM-EDX, GC/MS 등)
5월 17일 ~ 19일	물리적 분석장비(균제도, 태, 인장강도, SEM 등)
일시	기업기술경영 역량강화교육 : CEO 및 관리자 대상
4월 25일 ~ 26일	글로벌 시장 대응형 경영혁신
5월 23일 ~ 24일	섬유제품 생산관리

* 상기 교육은 기업신청에 따라 상세 일정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교육문의 및 신청 : Tel. 063) 830 - 3579 E-mail : sulhwa9280@kictex.re.kr